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문

산부인과를 걱정하시는 선생님께,
선생님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는 그 동안 2012년 4월 8일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시행령 46조)의 많은 불합리한 독소 조항들을 개선해 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분담비율이 7:3으로 변한 것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점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여러 독소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시행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략적 법적 대응 방법으로 우선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는 대상이 모든 보건 의료인으로서 의협이 중심이 되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시작할 예정이며, 우리 산부인과는 의협과 보조를 맞추면서 시행령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인단의 선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능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회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 액수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의협과 공동보조를 위한 비용과 산부인과 자체의 법적 투쟁 비용을 감안하자면 학회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회원들의 참여로 모은 성금을 우리 산부인과의 미래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께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동참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구좌에서 100구좌까지 원하시는 액수를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예 금 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은 행 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202-030070
방 법 1구좌 2,862원
(복지부 주장에 따른 산부인과의 분담 1건당 분담금)

의료분쟁조정법TFT 위원장	김	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	선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이	효

학회소식

제 64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2012.4.13~15)

제 64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4/13(금)~15(일) 일본 고베 Portopia Hotel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본 학회를 대표하여 이효표 회장, 김선행 이사장, 신경호 사무총장, 김영탁 학술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5명의 영탁터(박경의/서울의대, 이제연/이화대의대, 박지은/경상의대, 최윤진/가톨릭의대, 박현중/연세의대)가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에 참가하였다.

IS Award 수상자에 본 학회 박정열 교수(울산의대)가, IS Good Poster Award 수상자에 최철훈 교수(성균관대의대)와 박경의(서울의대) 선생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제 64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참석 후기

(경상의대 전공의 박지은)

지난 4월13일(금)~15일(일)까지 일본의 고베에서 <제 64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학술대회와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첫 날 각국의 전공의 및 펠로우가 참여하여 그룹토의를 하고 각 그룹의 토픽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조는 한국, 일본, 미국의 수련의 과정 및 산부인과 현황,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토의하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활이나 수련시스템,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아주 멋진 시간이었다. 이후 학회에서 저녁 행사로 Izakaya에서 영탁터들 간에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학술대회 기간 내내 훌륭한 호텔과 일본산부인과 학회의 친절하고 섬세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냈다. 각국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만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일본산부인과학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Tokyo Woman's Medical University Yachiyo Medical Center를 다녀와서

(가천의대 전공의 전승주)

2012.1/28~2/12까지 비록 2주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아직도 생생한 나만의 추억을 담아 공유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은 여섯 번이었으나, 가천의대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공의 일본 파견으로 다녀온 일곱 번째 방문은 달랐다.

명칭은 동경여자의과대학 Yachiyo Medical Center지만 신도시 에 새로 지어진 독립된, 전문의,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된 500 병상이 갖추어진 신설 병원으로서, 산부인과는 산과 위주로 입원 병동, 산과 외래, 고위험군 산모 집중 관리실, 분만실, 수술방,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 층에 모두 위치하고 있었다. 전문의,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당직을 선다. 개인병원에서 응급이 생기면 전공의가 직접 산모를 마취하고 수술 집도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수술, 시술, 진료 등을 직접 보고, 행한다고 한다.

이번 일본연수는 한 질환의 처치, 치료에 대하여 내가 정석이라고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어준 기회였으며,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처치, 치료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동경여자의과대학 Yachiyo Medical Center 모든 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린다.



회원동정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이효표 교수가 지난 4월 2일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여성암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효표 교수는 1966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76년부터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교수를 시작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본 학회 회장 및 한국부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회장,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산부인과내경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제 5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2.4.16.(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사안 심사

제 2차 학술 TFT

일시: 2012. 4.17.(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 17차 서울국제심포지움 및 제 98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의 건

제 6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일시: 2012. 4.18.(수)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경과보고 및 대처방안 논의

제 2차 고운맘카드 평가연구 및 차기 산과급여화 대비팀 회의

일시: 2012. 4.19.(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고운맘카드 평가 연구 논의

제 6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2. 4.23(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외

제 1차 기획위원회

일시: 2012. 4.24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재단설립 건

제 6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2. 5.2(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중식당
안건: 의료분쟁 조정법 및 DRG 진행사항 논의

제 3차 초음파 보험급여 대비 TFT

일시: 2012. 5.3(목)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산부인과 26개 행위중 대표행위 선정(5~6개)

제 5차 포괄수가 강제적용 대비 TFT

일시: 2012. 5.7(월)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포괄수가협회의 포괄수가(안)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제 7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일시: 2012. 5.11(금)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경과보고 및 대처방안 논의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예이사장인 강순범 서울의대 교수는 2012년 3월 서울대학교 병원을 휴직하고, 지난 4월 2일자로,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부임, 여성부인종양센터 소장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1973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강순범 교수는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부인과학 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고, 대한부인종양연구회-대한부인종양-골포스코피학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아시아부인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보험소식

1. 초음파 보험급여화 대비 TFT 3차 회의가 지난 5/4(목) 개최되었다. 그동안 TFT 위원들의 꾸준한 작업을 통해 산부인과 특성을 반영한 초음파세분류안 27개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각 전문 진료과목에서 제출한 560개 행위 중 전문학회별로 대표행위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7개 세분류 행위 중 산과와 부인과를 각각 대표하는 두 세 개의 행위를 지정하였다. 향후 지명된 대표행위들로 정책당국 및 연구단체들과의 세부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포괄수가 강제적용 대비 TFT 6차 회의가 5/7(월) 개최되었다. 이는 5/4(목) 개최된 포괄수가협의회에서 정해진 수가자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DRG 중증도 세분화를 위한 상병 및 수가 시뮬레이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등재부에서 기존에 등재되었던 모든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각 전문학회의 확인을 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메쉬, 복강경 관련 재료, 봉합사 등의 치료재료 분류기준 및 세부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상기 치료재료들을 검토하면서 진료현장과 맞지 않던 치료재료 급여기준(메쉬, 복강경재료)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한 '급여기준개정요청'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기준부에 제출하였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에서 신의료평가 등재된 '태아 피브리넥틴 TLIQ'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의견요청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복강내 온열화학요법'의 신의료 여부 및 검토를 의뢰받아 대한부인종양학회에 의뢰하여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에 전달하였다.
5. 국가 암 검진 중 자궁질 도말세포 중 누락된 '검체 채취를 위한 산부인과 의사 행위'로 추가책정 요청'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발의되었다. 이에 본 학회에서도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서 수렴한 안건을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에 제출하였다.

행사소식

2012년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모임 및 자학회 연석회의

일자: 2012. 5.17(목)

장소: 경주현대호텔 2F, 에메랄드홀

제 47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일자: 2012. 5. 18(금) ~ 19(토)

장소: 경주 현대 호텔

대한산부인과학회 유방연구회 심화과정(6기/1차)

일자: 2012. 6. 17(일)

장소: 학회 사무국

제 1차 중장년 여성건강 연수강좌

일자: 2012. 9. 9(일)

장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The 17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일자: 2012. 10. 4(목)

장소: Grand Hilton Seoul, Convention Center

제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일자: 2012. 10. 4(목) ~ 6(토)

장소: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컨벤션센터

2012 FIGO World Congress

일자: 2012. 10. 7(일) ~ 12(금)

장소: Fiera di Roma, Rome, Italy

<국제학회 명예회원 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국제학회 Honorary Membership 또는 Honorary Fellowship을 수여받으신 회원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해당되는 회원님께서서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신 후 학회 사무국으로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office@ksog.org, Fax: 02-3445-2440)

| 다 음 |

성	명	
국	제	학
위	촉	시
위	촉	명